

## 60년대생 89%,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현재 한국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집단은 1960년대생이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가 예고된 내년부터 65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로 ‘마쳐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들은 향후 10년 이내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돌봄 수요자이다.

60년대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나이는 54세였고, 퇴직 후 절반 이상은 다시 재취업/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 또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60년대생이 56%였고, 대다수인 89%가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넘버즈에서는 그동안 노인세대와 3040세대는 여러 번 다루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60년대생만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회에서는 사회보다 더 빠른 고령화로 중간 세대에 속하며 대부분 집사 이상 직분에 해당하는 60년대생의 경제, 부양, 노후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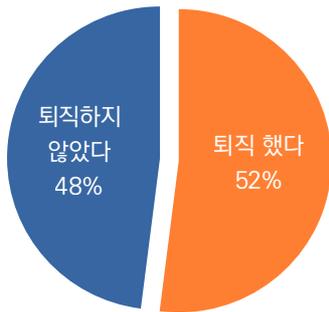
# 01

## [일과 직장]

# 60년대생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은퇴 나이, 54세!

- 한국의 고용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큰 변화를 경험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 같은 유행어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대변했다. IMF 이후 약 30년이 지나 은퇴를 바라보는 60년대생의 고용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는지를 묻은 결과, 절반 정도(52%)가 ‘퇴직했다’고 응답했고, 퇴직 경험자의 퇴직 나이는 평균 54세로 나타났다.

[그림]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여부 (60년대생)



[그림]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한 나이 (일자리 퇴직 경험한 60년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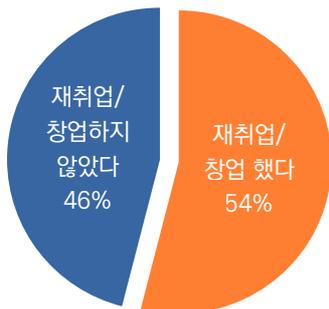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생애에서 가장 주되게 오래 해 온 일자리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절반 이상이 다시 일자리 가져!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퇴직 후 ‘재취업/창업했다’는 응답자는 54%였고, 퇴직 후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퇴직 후 재취업/창업 여부 (주 일자리 퇴직 경험한 60년대생)



[그림] 퇴직 후 가진 일자리 개수 (주 일자리 퇴직 경험자 중 재취업/창업한 60년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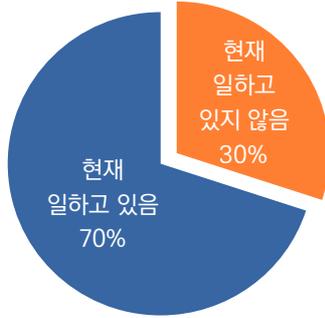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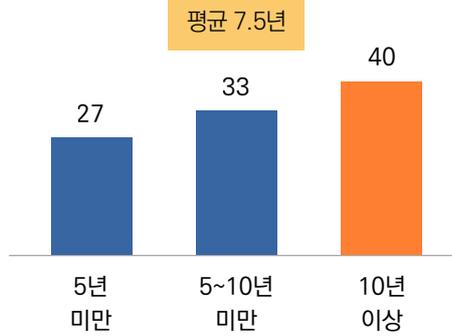
## 60년대생 10명 중 3명,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

- 이번에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현재 일하고 있음' 70%, '일하고 있지 않음' 30%로 60년대생 10명 중 3명은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일자리가 있는 이들에게 향후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10년 이상'이 40%로 가장 높았고, 평균 7.5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현재 일자리 유무 (60년대생)



[그림] 현재 일자리 예상 근속 기간 (현재 일자리가 있는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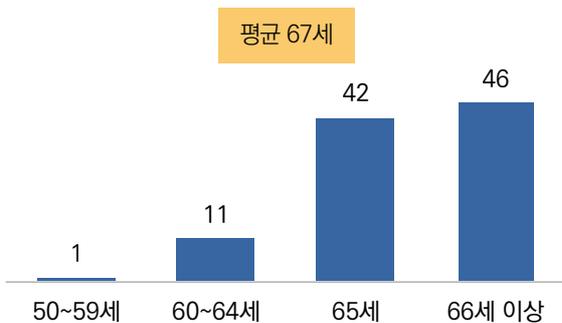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 60년대생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나이, 67세!

- 60년대생이 생각하는 적정한 은퇴 나이는 몇 세일까? '66세 이상'이 46%로 가장 많았고, '65세'가 42%를 차지했다. 두 비율을 합치면 88%로 60년대생 대다수는 65세 이상을 적정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평균으로 보면 67세로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세 더 높았다.

[그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은퇴 연령 (60년대생)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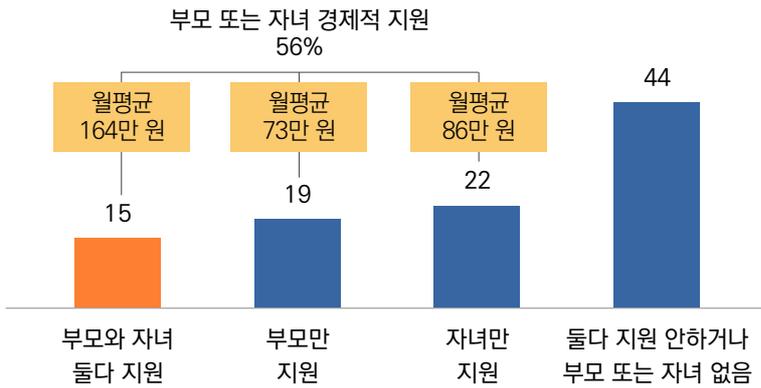
# 02

## [가족과 부양]

### 60년대생 56%, 부모 또는 자녀 경제적 지원하고 있어

- 앞서 언급한 대로 60년대생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다. 부양의 한 지표인 ‘경제적 지원’ 여부와 비용에 관해 살펴본다. 60년대생의 56%가 ‘부모 또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자녀만 지원’ 22%, ‘부모만 지원’ 19%, ‘부모와 자녀를 둘 다 지원’ 15%로 각각 나타났다.
- 월평균 지원 비용으로는 ‘부모와 자녀를 둘 다 지원’하는 ‘이중 부양’의 경우 164만 원, ‘자녀만 지원’ 86만 원, ‘부모만 지원’ 73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림] 부모/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비용\*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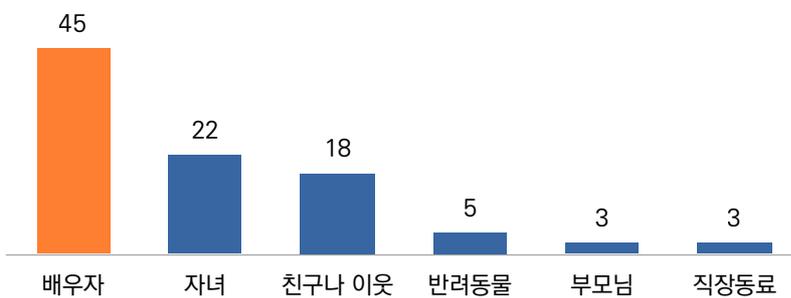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부모 있는 응답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자녀 있는 응답자)를 교차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임

##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 결과, ‘배우자’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자녀’ 22%, ‘친구나 이웃’ 18%, ‘반려동물’ 5%, ‘부모님’ 3% 등의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반려동물’이 ‘부모님’, ‘직장동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것이다.

[그림]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 (60년대생,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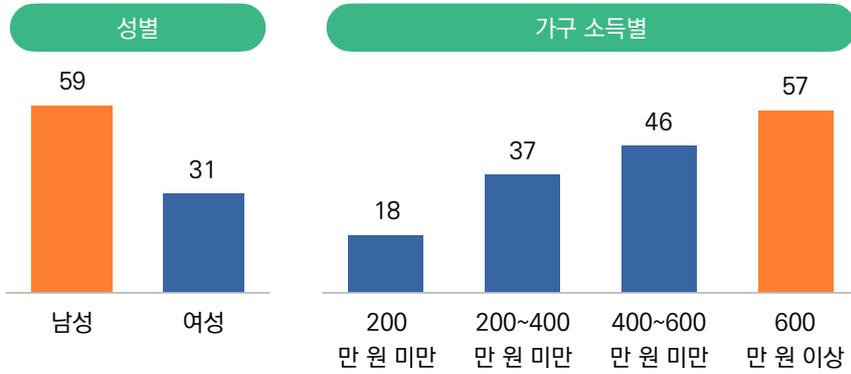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 ‘남성’과 ‘고소득 가구’일수록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으로 ‘배우자’ 꼽은 비율 높아!

-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을 성별,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성(59%)이 여성(31%)보다 배우자 선택 비율이 더 높았고,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응답자 특성별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 비율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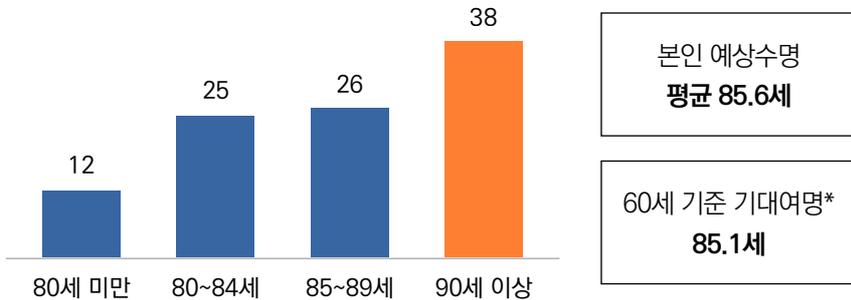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 03 [건강과 여가] 60년대생,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30년 더 산다!

- 60년대생은 본인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 38%가 ‘9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상했다. 즉 5명 중 2명 가까이가 본인이 9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대여명’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2022년) 기대여명은 60세 기준으로 85.1세이다. 60년대생이 생각하는 기대여명은 평균 85.6세로 통계청이 발표한 60살 기준의 기대여명과 거의 비슷했다. 60년대생의 기대여명을 80대 중반으로 감안하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54세) 후 30여 년을 더 사는 셈이다.

[그림] 본인 예상수명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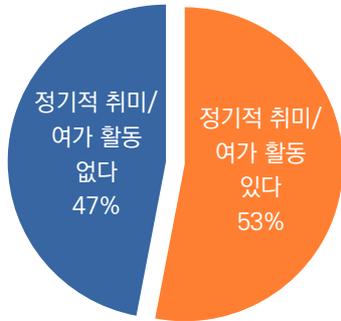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통계청 2022년 생명표

## 60년대생 2명 중 1명만이 정기적 취미/여가 활동 하고 있어!

- 60년대생들의 취미/여가 활동 수준을 살펴보았다.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3%가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월평균 26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림] 정기적 취미/여가 활동 유무 (60년대생)



[그림] 월평균 취미/여가 활동 사용 비용 (정기적 취미/여가 활동 보유중인 60년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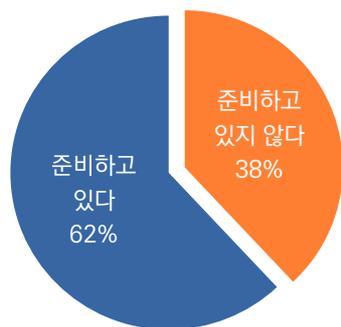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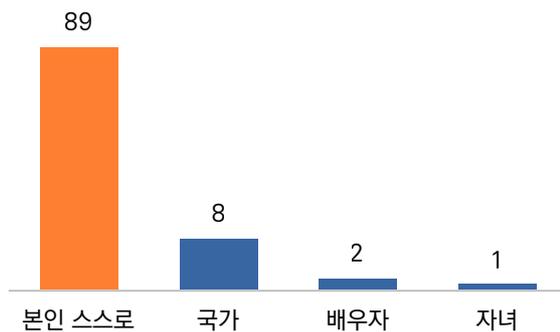
## 04 [노후 및 죽음 준비] 60년대생 89%,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 60년대생의 현재 노후 준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가 62%, '준비하고 있지 않다' 38%로 10명 중 4명은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는 60년대생 대다수(89%)가 '본인 스스로'를 꼽았다. 국가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그림] 현재 노후 준비 여부 (60년대생)



[그림]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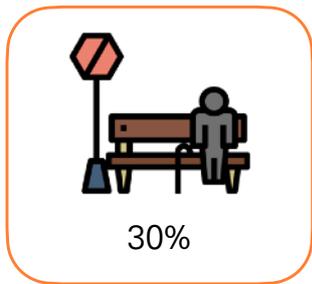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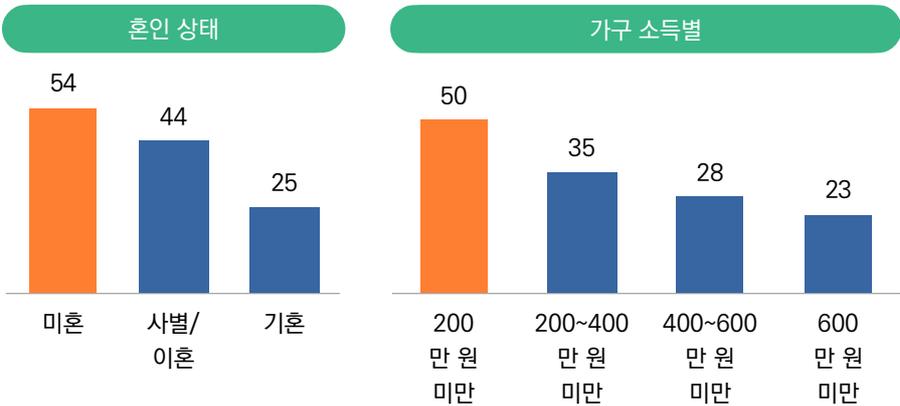
## 60년대생 미혼자,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54%

- 고독사할 가능성이 0~100%까지 있다고 할 때,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60년대생들에게 묻은 결과 평균 30%로 나타났다.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또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는데 미혼자인 경우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이 54%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자의 고독사 가능성은 50%로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60년대생)



[그림]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60년대생, %)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 05 [60년대생 교회 출석자의 신앙과 고민] 교회 내 60년대생 3명 중 1명, 중직자!

-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 자료에서 1960년대생 교회 출석자들의 교회 생활 관련 데이터를 뽑아 살펴본다. 직분별로 보면 집사가 43%로 가장 많았고, 권사/안수집사 이상 중직자 비율은 34%로 조사됐다.
- 예배 외 활동 여부를 묻은 결과, 절반이 채 안되는 43%만 예배 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소그룹 활동 참여자는 절반 가량(51%)이었는데 이중 정기적 참석자는 4명 중 1명 정도(27%)에 그쳤다.

[그림] 교회 생활 (60년대생 교회 출석자, %)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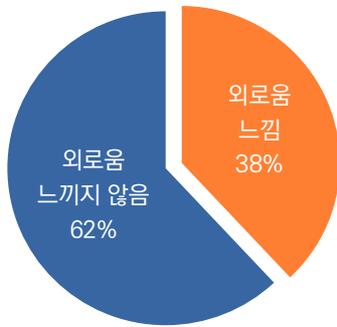
\*친교, 회의, 봉사활동

Note) 코로나19 종료 시점의 조사 결과임. '예배 후 활동', '소그룹 활동' 결과 해석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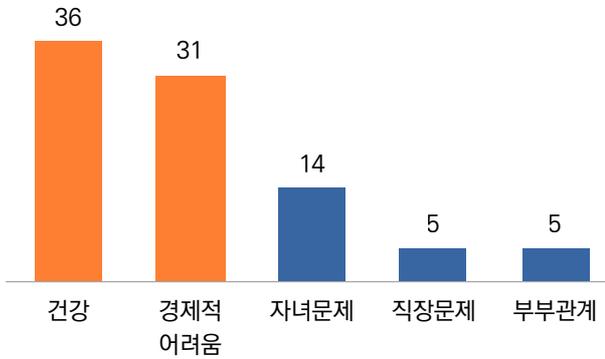
## 교회 내 60년대생 10명 중 4명, '요즘 외로움 느낀다'!

- 60년대 교회 출석자들의 외로움 정도를 물었더니 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것으로는 '건강(36%)', '경제적 어려움(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요즘 외로움 정도\*  
(60년대생 교회 출석자)



[그림] 요즘의 고민거리 (60년대생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1.09.~01.16.)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1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5.12.~05.31.)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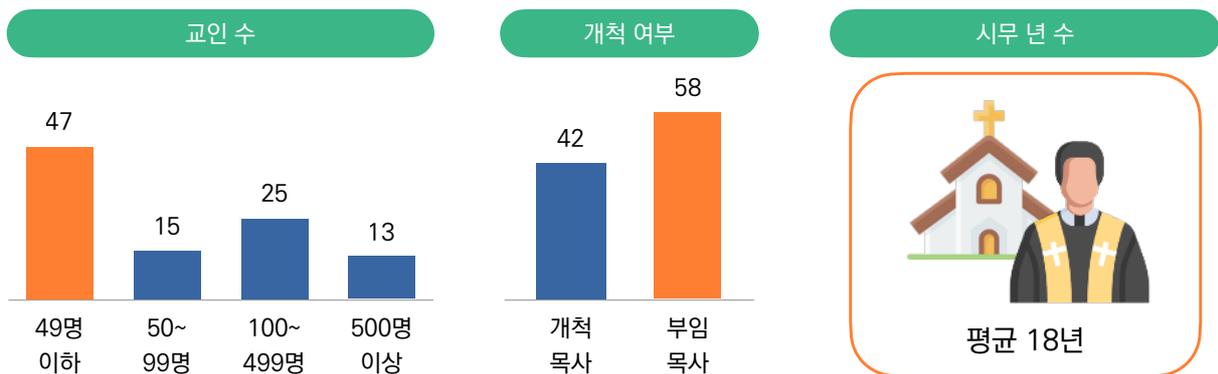
## 06

### [60년대생 목회자 실태와 노후 준비]

### 60년대생 담임목사 시무교회의 절반은 50명 미만 소형교회!

- 이번에는 60년대생 담임목사들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본다. 담임목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교인 수는 절반 가까이 (47%)가 '49명 이하'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개척 목사(42%)'보다는 '부임 목사(58%)'인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이들의 시무 년 수는 평균 1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0년대생 담임목사 시무교회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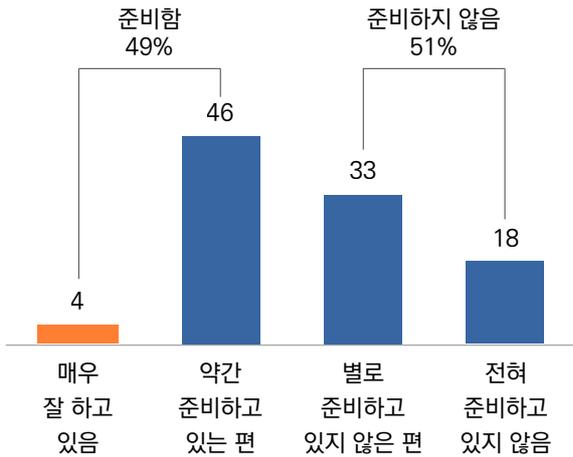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조사, 2023.01.31.~02.12.)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19.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3.05.12.~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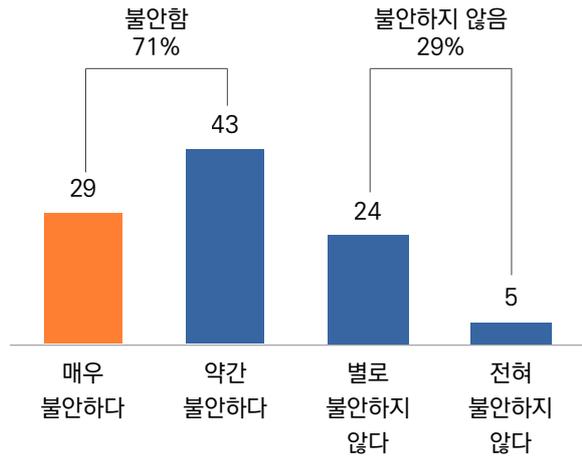
## 60년대생 담임목사 71%, ‘은퇴 후 경제적 상태 불안하다’!

- 60년대생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어떨까? ‘준비함’ 49%, ‘준비하지 않음’ 51%로 비슷하게 응답했으나 ‘매우 잘하고 있음’ 비율은 4%에 불과했다.
- 노후 준비 비율을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60대 담임목사 49%, 60대 일반 국민 62%(7쪽 참조)로 목사 그룹이 일반 국민보다 노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퇴 후 경제적 살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60년대생 담임목사의 71%가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이중 ‘매우 불안함’ 비율은 10명 중 3명(29%)에 달했다.

[그림] 노후 준비 (60년대생 담임목사, %)



[그림]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감 (60년대생 담임목사,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조사, 2023.01.31.-02.12.)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19.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3.05.12.-05.31.)

## 이번호 요약

### 1. 60년대생,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30년 더 살아!

- 60년대생의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나이는 평균 54세,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은퇴 나이는 67세로 나타났다.
- 하지만 본인의 기대수명은 85.6세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30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 2. 60년대생 89%,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 60년대생의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은 62%에 머물렀다. 60년대생 담임목사의 노후 준비 비율은 이보다 더 못 미치는 49%이다.
-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 '본인 스스로'를 선택한 비율이 무려 89%로 60년대생의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을 나타냈다.

### 3.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은 '배우자'가 45%로 '자녀(22%)'나 '친구나 이웃(1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860만 은퇴 쓰나미 - 60년대생이 온다 \(KBS 시사직격\)](#)
- ▶ [\[기사\]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쳐 세대'를 아시나요... \(조선일보\)](#)
- ▶ [\[서적\] 60년대생이 온다 \(김경록, 비아북\)](#)

## 관련 성경 구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4)

## 목회 적용점

3040세대와 노인에 끼어 크게 주목받지 못한 60년대생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60년대생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경제적 문제', '외로움'이다.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축소되고, 아직 부양할 가족은 많은데,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잡더라도 소득이 예전만큼 못하다.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외로움이 늘고, 따라서 위로가 되는 유일한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특히 남성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교회가 이들의 이러한 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교회 내 중심 리더십 그룹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신도 이하의 직분이 3명 중 2명(66%), 절반 이상(57%)이 예배 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그룹 참여 비율도 27%에 불과했다.

이들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산을 교회가 심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60년대생 중 교회 내 비활동자를 적극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을 것이다.